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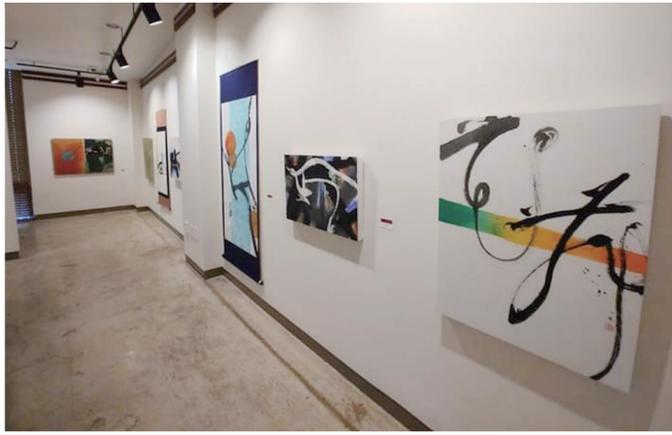
서예술과 조형예술의 접목, 최수일전

18일까지 완주 청운갤러리

이종근 기자 lig@sjbnews.com

현봉 최수일 현대사에 '유자전(遊字展)'이 18일까지 완주 청운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열 번째 전시로, 종래의 전통적 서예에서 탈피한 현대사에는 이른바 전위서(戰衛書), 회문자(繪文字), 또는 그림문자, 미술서예 등의 대표적인 말이다.

문자가 회화성을 가지면서 미술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이 동원되는 현대사에는 현대미술의 흐름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좀 더 새로운 재료들을 공급하게 되었고 종래의 형식만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서예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최수일의 문자놀이하는 서예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람자와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한편 '또 다른 서예'를 선보인다 할 수 있다.

작품은 모두 35점이 선보인다. 1층은 서각전, 2층은 현대사에 유자전(遊字展)이 각각 열린다.

서예술과 조형예술을 접목한 형태는 서예가지만 미술을 전공한 작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서예술이 가지는 동양의 정통성에 조형이 내포하는 서양의 현대성을 덧대고 있다. 이는 조형화된 문자를 나무에 새김질하거나 서예의 전통적인 장법을 과감히 배제한 채 회화적으로 구성하고, 색채를 화려하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화면이 눈길을 끈다. 방향을 벗어나 거친 톱날로 만들어진 화면과 크고 작은 조각을 조립한 모자이크식 화면이 그것이다. 조형화된 문자를 나무에 새김질하여 회

화처럼 채색된 작품들은 종래의 서예나 서각과는 다른 새로운 장르로서의 신선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른 바, 전통사각이 진화된 현대적 문자 표현예술을 볼 수 있다. 서예가이면서 미술을 전공한 작가의 조형의지가 남달라 보인다. 일련의 작품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화면의 선택이다.

방향을 벗어나 거친 톱날로 만들어진 화면과 크고 작은 조각을 조립한 모자이크식 화면은 작가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문자를 포치하거나 오브제의 선택, 채색까지도 의도된 조형 방법으로 보인다. 서예라는 동양적 예술을 바탕으로 서양적인 현대성으로 이해되는 작품에서 작가의 서구적인 취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작가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현대와 전통의 절충적 표현이라는 점이다. 소통과 기록의 수단인 문자를 가지고 모필의 맛과 새김질의 맛을 동시에 보여주거나 그것을 채색하므로 회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팔복예술공장 주민초청공연 '소리가교'

전주문화재단-목포문화재단

전주문화재단은 목포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9일 오후 3시 팔복예술공장 카페 서니에서 팔복주민초청공연 '소리가교' 공연을 갖는다.

이 사업은 기초문화재단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의 사업 주제를 발굴·실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양 재단이 마련한 공연, '소리가교'는 전주와 목포가 '소리'라는 전통콘텐츠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첫 무대는 2021년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수상한 소리꾼 양혜인이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 후 임 그리는 대목'을 정보영 고수와 합을 맞춘다. 이어서 2부는 인기리에 방영되



불꽃문학상에 진창윤 시인

작가회의는 작품상에 김명국 시인

14회째를 맞는 '불꽃문학상'은 <달 갈라 현상소(여우난골)>의 진창윤 시인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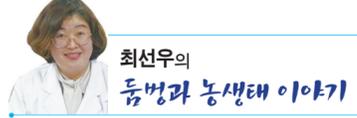
전북작가회의가 2006년 제정한 불꽃문학상은 어둠과 흑한 속에서 빛을 발하는 불꽃처럼 뜨거운 정신으로 문학의 길을 밝혀가길 바라는 동료 문인들의 격려가 담긴 상이다. 올해 불꽃문학상은 2021년 한 해 작품을 출간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당초 300만 원이었던 상금은 지난해부터 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을 통해 "등단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시들은 오랜 시간 버려 온 갈채를 빛냈다. 이미 화가로 입지를 다진 그가 골방에서 묵판을 새기듯 글을 썼다. 섬세하게 날카롭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다. 쓸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고 허투루 살지 않겠다는 진중함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진 시인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우석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2017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김 시인은 '동구간'의 1편의 시를 기고해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심사위원들은 "농



경문화를 밑그림 삼은 그의 언어미학은 자금의 문학적 상황과는 별개로 되레 유연하고 당당했다. 김명국의 문학은 앞으로 시대와 역사의 맥박이 "사람의 진솔한 행위"라는 점을 눈부시게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이종근 기자

페인트가 선명하게 칠해진 네덜란드 사무실은 온실과 연결된다



35. 유리온실로 이어진 길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위치에 직장이 있다. 발령과 동시에 중고자가용을 구했다. 장롱 면허증을 꺼내 운전을 하려니 고달프기도 했지만 즐거움도 생겼다. 주말에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국도를 따라 운전하며 다니곤 했다. 이른 새벽부터 산과 산 사이의 도로를 달렸다. 입실에 들어서서 멀리 지리산이 희미하게 보이고 동쪽에서 붉은 해가 떠오를 때쯤 차를 돌려 전주 시내 어디에선가 늦은 아침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동쪽으로 달리면 진안 산간지다. 서쪽으로 달려 나지막한 산을 지나면 평야다. 논과 논 사이를 달리고, 김제 어느 도로에선가 기다란 그림자가 인상적인 메타스퀘어길을 만나기도 했다. 군산으로 달리면 지금의 새만금을 만났다. 일상이 바빠지면서 주말드라이브는 10여 번이나 했을까? 추억 속으로 가물가물해졌다.

네덜란드였다. 렌트한 집에서 렌트한 차로 40여 분을 달리면 연구소에 도착했다. 유통물량이 상당함을 알리듯 도로엔 농산물 사진이 부착된 다양한 컨테이너를 끄는 화물트럭이 계속 달렸다. 어느 날인가 너무 빠르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문은 채 열리지 않았다. 대기하고 기다리던 차 밖은 너무 추웠고, 시동만 켜고 앉아 있기에 안은 너무 답답했다. 차를 서서히 몰아 주변을 달렸다. 평지 위로 수로 사이로 차를 몰았다. 하루 종일 달려도 평야처럼 평평한 넓은 평지만 보이는 곳이다. 경사진 길이 거의 없어 하루 종일 걸을 수도 있을 것만 같다. 평야하면 경지정리된 네모반듯한 논을 떠올렸다. 이곳에선 평지 위로 네모반듯하게 지어진 유리온실이 보인다. 우리가 아는 파프리카, 딸기, 오이, 토마토, 장미 외에도 서양산, 거베라, 관상용 조



경수, 분화를 생산하는 유리온실을 지났다. 동양스타일의 정원을 가진 분화를 생산하는 온실도 지났다. 20분을 달렸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 왔던 길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아 양쪽으로 유리온실이 이어진 길로 돌아갔다. 간혹 생산을 멈춘 온실도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의 온실 내부는 원예작물이 자라고, 온실 외부 벽면에 각색의 페튜니아꽃이 핀 화분이 규칙적으로 매달려 있다. 페인트가 선명하게 칠해진 사무실은 온실과 연결된다.

네덜란드 westland는 북해와 인접한 서쪽을 말하며 유리온실이 밀집되어 있다. 반듯한 네모 하나는 최소 1 헤타아르이다. 논 2-3필지다. 출장으로 로테르담에서 델프트, 또는 헤이그 주변의 온실을 방문할 때면 차로 이동한다. 대부분이 한시간 거리이다. 이동하는 동안 유리온실이 이어진다. 한시간 동안 유리온실만 보는 것은 결코 경험해보지 않았다. 직장에 들어와 일정 시기는 경역을 했고, 품을 수확했고, 귀리를 도입했다. 때로는 딸기를 찾아 눈에 들어갔고, 나방 애벌레와 이들의 천적인 곰팡이를 찾아 고무마 발을 누비고, 한때는 예산집행만 했던 적도 있으며,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연구를 마약 시작했던 참이다.

지도를 펼쳤다. westland를 찾아 보니 새만금이 떠올랐다. 바다와 인접해 있고, 간척지이며 드넓은 평야가 인접해 있다.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사성으로 과거에 여러차례 농지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걸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 항구에 한국을 위한 물류센터를 구축했다고 한다. 새만금에도 물류센터가 구축되고 항구의 형태를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다. 이 곳에서 세계의 시장을 어떻게 연결하게 될지 궁금하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로테르담 항구에 한국을 위한 물류센터를 구축했다고 한다. 새만금에도 물류센터가 구축되고 항구의 형태를 하나씩 갖추어 가고 있다. 이 곳에서 세계의 시장을 어떻게 연결하게 될지 궁금하다.

/전북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농업환경과 농업생태실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대통령상 김경희 '바둑탕건' 등 선보여

제46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수상작 전시가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결'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4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은 사라져가는 전통과 전승의 의미를 일깨우고 우리 전통공예 문화의 맥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공모전으로, 신진작가 및 기성작가 등 뛰어난 전통 공예인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올해 전승공예대전에는 전통공예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하는 12개 분과에서 289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심사와 대국민 인터넷공람, 전문가 현장심사, 2차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비롯한 6개 본상 수상자가 정해졌다.

심사결과, 대통령상에는 김경희 작가의 '바둑탕건'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형식과 문양, 짜임 등 숙련된 솜씨가 단연 두드러지고 전통에 충실하며 사라져가고 있는 취약종목의 전승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이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대통령상을

안았다.

국무총리상에는 옷질공예 중 난이도가 높다는 건칠 기법을 사용, 재료와 기법의 전통성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권영진 작가의 '협저칠기 달항아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에는 모함과 자합의 구조를 결합하는 기술이 치밀하고 정교한 지승공예의 특징을 잘 살린 김강희 작가의 '지승 구절판', 문화재청장상에는 원단부터 바느질 기법까지 전통 복식의 고상한 품격을 탁월하게 구현해낸 김명자 작가의 '철릭'이 선정됐다.

국립무형유산원장상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하여 붉은색 농담의 아름다움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표현해낸 남해인 작가의 '홍화 염색',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이사장상에는 느티나무 용목의 화려한 목리와 제작 기법, 형태가 조화로운 노성민 작가의 '의결이장'이 선정됐다.

시상식과 개막식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층 풍류극장에서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사)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종근 기자

